



현대코어모션 김대순 대표이사

대담 : 김선민 편집이사(인하대학교 교수)

정리 : 양희관 사무국장

Q 현대코어모션에 대한 소개를 부탁드립니다.

A 현대코어모션은 1985년 현대중공업 건설장비 부문의 A/S 부품 공급을 시작으로 건설장비 사업 성장과 발 맞추어 계속해서 성장해오고 있습니다.

2005년엔 충북 음성에 위치한 글로벌 부품 센터를 준공했으며 2011년엔 두바이 지사 설립 등 잇따른 해외 법인 거점 확보로 탄탄한 글로벌 A/S 부품 공급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왔습니다.

매출 역시 1999년에 800억 원 규모로 시작하여, 2018년에는 2,400억 원 규모로 지속 성장 중입니다.

그리고 2018년 모기업인 현대건설기계가 영위하던 핵심 기능품 사업 부문(모터, 메인 컨트롤 벨브, 유압 실린더)과 기존 A/S 부품 사업을 통합하였고, 지게차 및 농기계용 트랜스미션과 드라이브 액슬을 생산하는 TNA사를 인수하여 2019년 4월 1일 현대코어모션이라는 이름으로 새롭게 출범하였습니다.

사명의 의미는 사전적 의미로 ‘CORE’는 중심부, 핵심적이라는 의미이며 ‘MOTION’은 운동 즉, 움직임 의미합니다.

사명에 반영된 의미로 설명을 드리면 ‘CORE’는 완제품 기능과 품질을 보증하는 핵심 기능품 및 미래의 먹거리인 전장품 그리고 고객 서비스의 CORE인 A/S 부품입니다. ‘MOTION’은 기계의 움직임이고 기계의 움직임에 가치를 더한다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즉, 최고 품질의 부품 공급으로 고객사 완성 장비의 경쟁력을 끌어올려 사업 성장을 이루겠다는 현대코어모션의 경영 방향성을 표현하는 사명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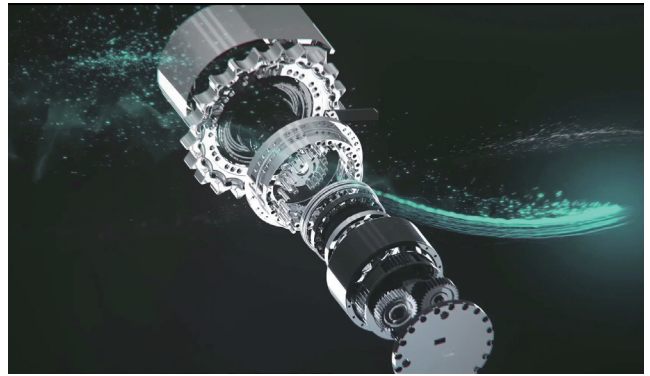
Q 현대코어모션의 주력 사업인 A/S 부품 사업과 양산 부품 사업에 대한 소개와 동 분야에서의 현재의 위상, 앞으로의 전략과 전망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A 당사가 영위하는 사업은 크게 나누면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로 모기업인 현대건설기계 완제품의 수리용 순정 부품을 공급하는 A/S 부품 사업입니다.

현재 다섯 개 해외 법인 및 두바이 지사와 더불어 140여 개국 540개의 글로벌 딜러십 네트워크를 통하여 최고 품질의 순정품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고 있습니다.

금년 내 두 군데의 해외 Depot 설립 추진을 통해 글로벌 고객에게 더욱 진보



된 product support를 제공하기 위한 아낌없는 투자 역시 진행 중입니다.

두 번째로는 양산 부품 사업으로 건설 기계 중장비, 지게차, 농기계에 적용되는 핵심 기능 부품을 자체 설계하여 생산 및 판매하는 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해당 제품은 MCV(메인 컨트롤 밸브), 주행 모터, 선회 모터, 유압 실린더, 트랜스미션 그리고 드라이브 액슬입니다.

현재 국내, 중국 등 네 개 공장에서 해당 제품을 생산하고 있으며 지속적인 투자로 최고 품질의 기능품을 공급하여 당사 브랜드의 글로벌화 및 명실상부한 부품 전문 회사로서의 위상을 확보할 계획입니다.

또한 전장 부품군으로 기술력을 더욱 확대하여 미래를 대비할 수 있는 경쟁력을 갖추기 위한 준비도 착실히 진행하고 있습니다.

한편, 당사는 AS 부품 사업과 양산 부품 사업 간의 시너지로 건설 장비 완제품의 경쟁력으로 이어질 수 있는 성장 전략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A/S 부품 사업을 통하여 벌어들인 수익을 양산 부품 사업에 재투자하여 최고 품질의 핵심 기능 부품을 제조합니다. 이는 곧 완성 장비 경쟁력으로 이어져 판매가 성장할 것이고, A/S 부품 시장의 확대로 이어지는 사업 성장의 선순환이 되는 구조입니다.

건설 기계 시장은 외부 변수에 더욱 민감하고 특히 글로벌 경기에 따라 변동이 큼니다.

최근 미중 무역 전쟁, 일본의 수출 규제, 이란과 터키의 지정학적 불확실성 등으로 인해 세계 경제가 장기적

불황 국면으로 접어들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에 따라 인프라 투자와 밀접한 연관이 있는 건설 기계 시장의 침체와 부품 사업 수요 감소가 우려됩니다. 중장기적으로 경기 상승 하강의 순환이 반복될 경우, 불황기의 건설 기계 기업들은 더욱 혹독한 시련에 직면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 대비하는 당사의 전략 방향은 사외 건설 장비 제조 기업을 고객으로 발굴하여 핵심 기능 부품(양산 부품 사업) 공급을 확대하는 것과 양산 부품 사업을 성장시켜 A/S 부품 사업 의존도를 낮추고 지속 성장 가능한 구조를 만들어 나아가는 것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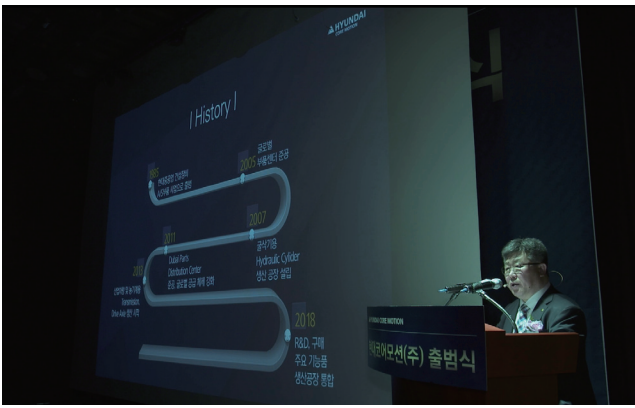
이를 위해 당사는 독립 법인으로서 부품 공급 영업 전담 조직의 글로벌 영업 활동과 전문 기술 인력의 제품 개발 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할 것입니다. 최근 매출, 영업 이익의 호조로 성공적인 결실을 보여 주고 있습니다.

Q 현대코어모션의 '비전(Vision) 2023'에 대한 소개를 부탁드립니다.

A 2019년 4월 5일 분당상공회의소에서 많은 관계자 분들과 함께 성황리에 출범식이 진행되었습니다.

2017년 4월에 현대건설기계가 현대중공업으로부터 분리되었고 2년 뒤 현대건설기계 부품 사업 부문이 분리되어 현대코어모션이 시작된 것입니다.

사업 소개에 이은 비전 발표를 진행하였고 부품 사업 전문성 확보와 독자 경영이 만들어 낼 사업 성장에 대한 자신감을 부각하였습니다.



출범식 전에는 고객 및 협력사 그리고 업계 관계자분들 사이에서 많은 기대와 더불어 그에 상응하는 우려가 섞여 있었으나, 최근까지 당사가 당당히 서가는 과정에서 많은 분들의 기대에 부응하고 있는 것 같아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현대코어모션의 새로운 비전은 2023년 매출 1조 원의 글로벌 기계 부품 전문 회사로의 도약입니다.

비전 달성을 위해 최고 품질의 최상 제품을 생산하기 위하여 주력 제품인 모터 공장에 MES 시스템을 연내에 적용하고, 내년까지 국내에 흩어져 있는 세 개 생산 공장을 하나의 신공장으로 통합 운영하는 것과 중국 강소성에 소재하는 실린더 공장은 유압 기능품 전체를 생산하는 공장으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최첨단 설비와 생산 시스템을 바탕으로 최고 수준의 생산 기술력과 품질 관리 프로세스를 통해 경쟁력 있는 제품을 지속적으로 공급하겠습니다.

무엇보다 당사의 경쟁력은 기술력에서 나오고 기술력은 우리의 생존과 직결된 가치이기에 지속적으로 미래를 위한 기술을 탐구하고 확보할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 R&D에 대한 과감한 투자와 우수 인재 육성 프로그램을 시행 중이며, 2020년 하반기 준공 예정인 현대중공업 통합 R&D 센터에서 기술을 선도하는 엔지니어를 키워낼 것입니다.

또한, 건설 장비의 전기 동력화, 무인화 및 ICT 기술 적용이 확대됨에 따라 제어기, 클러스터 제품 개발 등 전장 부품 사업 영역도 확대 발전시켜 중장비 기계 부품의

Total Solution Provider로서 자리매김 하고자 합니다.

이러한 투자와 사업 경쟁력 강화로 궁극적으로는 더욱 많은 고객의 완제품에 현대코어모션의 핵심 기능 부품을 채택하는 미래를 만들어 낼 것입니다. 많은 관심과 응원 주시면 감사 드리겠습니다.

Q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씀을 부탁드립니다.

A 독립법인으로 분사하면서 과생되는 많은 새로운 일들이 임직원들에게 적지 않은 부담일 것입니다.

그러나 분사 준비부터 지금까지 회사의 발전 가능성을 믿고 묵묵히 본업에 최선을 다해주고 있는 우리 임직원들에게 감사하다는 말을 전하고 싶습니다.

현대중공업의 프레임을 탈피하여 당사 조직에 맞는 옷을 입어야 하고 그리고 당사 사업에 특화된 일하는 방식을 새롭게 만들어 나아가야 합니다.

그러한 배경에서 저는 우리 구성원들에게 ‘작지만 강하고 스마트하게’ 라는 캐치프레이즈를 소개했습니다.

여기에 일곱 가지의 구체적 실천 과제를 제시했는데, 요약하자면 ‘잘 할 수 있는 것에 집중, 비효율적인 관행 제거, 과감한 실행, 실행 관점의 의사 결정, 내 프로젝트라는 생각, 아이디어 발현 분위기 형성, 다양성의 연결을 통한 혁신 가속화’ 입니다.

지금까지 눈에 보이는 여러 업무 혁신들이 이어지고 있고 점차적으로 강하고 스마트한 조직으로의 변화를 경험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한 측면에서 변화 적응의 속도와 전략 실행의 과감성은 콤팩트(compact)한 당사 조직의 큰 장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국내 메이저 중장비 업체 최초로 그 누구도 가보지 않은 길로 나아가고 있고 그 길이 다소 낯설겠지만 우리가 지나갈 발자취 하나하나가 업계를 선도하는 경쟁력이 될 것임을 말씀 드립니다.